

공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공주발전을 위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과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농촌사회와 농촌개발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공주발전, 특히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 나름의 몇 가지 제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 전통문화를 뛰어넘는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주는 아시다시피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이 있고 갑사, 동학사, 마곡사 등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찰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이 공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문화유산과 유명 사찰을 제외하면 공주의 관광지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관광정책을 이곳에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만난 한 분은 공주시의 관광정책이 전통문화에 초점이 맞춰있다 보니 미술관 등 새로운 소재의 관광지는 시정에서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개인 미술관, 박물관 등등을 문화재로 인정해 간판도 만들어 주고 홍보도 해주는데 공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가 워낙 전통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공주에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광이 창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새로운 가치 지향의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확산시키는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주시 관광의 특징은 시내 중심의 백제유적지와 갑사, 동학사, 마곡사 등 사찰 중심의 관광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으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방문지로써의 공주관광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유적지와 전통사찰을 거점으로 주변으로 확산시킬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주에는 13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60~70곳의 농촌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이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체험농장은 공주시 농촌지역 구석구석에 산재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놀이문화를 발굴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자유학기제를 위해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놀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내 백제문화유적지와 사찰 중심의 관광지와 농촌체험관광지와 연계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에 보조금 내지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주공간의 정비 내지 창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주시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에 계속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공주시의 유입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에 내려온 많은 공직자와 연구자들이 공주시 정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종시에 내려온 공직자들이 노후를 생각해 벌써부터 농촌빈집과 토지 매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주시의 주택가격과 지가가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주시에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귀농귀촌자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짧은 기간 머물며 공주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자들이

집단을 형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창출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외부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방식보다는 공주시가 직접 관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신뢰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시 공주에는 이곳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오다 퇴직 후 다시 공주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테마마을(일명 선생님마을)을 조성하면 공주가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치(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실행을 위해서는 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간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주시의 행정체계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모든 권한이 시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과 밀접히 관련한 분야인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귀농귀촌, 로컬푸드 관련 업무는 대폭 아래로 내보내거나 현장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주에는 구석구석에 자기만의 신념과 노력으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친근감있게 행정에 다가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중간지대인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히 민간과 행정을 연결해주는 통로뿐만 아니라 사람을 육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공주나드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민간과 행정의 참여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